

광주 일반고 기숙사 폐지 나선다

“입시 심화반 운영은 차별”…29곳 중 2021년까지 15곳 폐지 예산 2억원 지원 리모델링 통해 독서실·학생 자치공간 활용

광주시교육청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 심화반을 운영하는 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고 기숙사 폐지에 나선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에서는 공·사립 일반고 29곳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3700여 명이 입사해 생활했다.

대다수 학교들이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과 모의고사성적, 진

단평가성적 등을 70~80% 반영해 대학교 진학을 위한 심화반을 운영했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성적 우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개선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기숙사를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등 학생활동 종합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는 방침

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후 오는 2021년까지 총 15곳의 기숙사를 폐지할 계획이다.

기숙사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예산 2억원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기존 기숙사 공간에는 자율학습 및 공부방, 독서실, 학생 자치공간 휴식 및 체력단련장 지역민 문화공간 등이 들

어설 예정이다.

교육청의 의지와 달리 일부 고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기숙사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재구조화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3곳의 기숙사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가 2곳에 그쳤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상위권 학생 중심의 기숙사 운영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양심 우산”으로 민주시민 키워요 광주농성초, 양심우산·학생회 의견 게시판 제작

광주농성초등학교(교장 이광숙) 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양심우산 제도와 자유 의견 게시판을 운영하며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거듭난다.

양심우산은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맞바비가 가정의 증가로 가정의 불만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이용하고 반납하는 공공형 우산 대여 제도다. 학생자치회 게시판을 교육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 누구나 의견을 기록할 수 있어 자유로운 공론장이 될 전망이다. 양심우산과 게시판을 학생회가 관리를 담당한다.

농성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2018년 10월 달에 개최한 나눔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학생자치회 게시판과 양심우산을 제작해 지난 12월27일 전교학생회임원단에

전달했다.

농성초 이유미 전교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 게시판을 통해 전체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며 “학생들을 대표해 게시판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적극 학교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장 이옥연 학부모는 “갑작스레 비가 올 때 우산 없이 나간 딸이 걱정이었는데 양심우산이 생겨 비오는 날 우산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두형 교사는 “(게시판과 양심우산이) 민주시민으로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교육적 소통기구 역할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자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고용 한파 속 쾌거...광주자동화설비공고 취업 성과 '주목'

91% 공기업·대기업 합격...최종 취업률 90% 넘을 듯



장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하고 대졸자 취업률도 60%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고용 한파 속에서 광주자동화설비공고(교장 안규완)

재학생 79명 중 59명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체 취업 학생은 68명이며 올해 1월3일 기준 취업률은 82%다.

현재 일부 대기업 공채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취업률은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광주자동화설비공고 3학년 학생들이 합격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7명), 한전KDN(8명), 한전KPS(3명), 한국수자원공사(3명), 포스코(5명), 삼성전자(16명), 삼성SDI(5명), LG화학(3명) 등이다.

전체 취업률 중 공기업과 대기업 취업비율은 91%다. 취업률만을 단순 비교하는 현 세태를 꼬집듯 취업의 질 측면에서 단연 전국 최고의 성과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포스코와 한수원 등에 2학년 때 이미 취업을 완료했다. 2018년 6월경엔 삼성전자에 16명이 대거 합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제주한림공고, 완도수산고, 이산진

자기계공고 등 전국의 많은 직업계고가 광주자동화설비공고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 연수를 진행했고 지역 내 산업체로부터 학생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의뢰하는 등 전국 유일의 자동화설비분야 마이스터고로서 그 위상과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토론학습 등 질문이 있는 교실 운영, NCS기반 직무교육, 자기수준성취평가제, 토익 캠프, 프로젝트작품전, 국제교류학습, 창의체험활동 등 학생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채용기관 맞춤형 취업교육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 이정상 교감은 “학생 스스로 토론과 컨설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이 취업역량강화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학생들의 지·덕·체가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기탁 줄이어

고흥군은 최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2백2십만 원)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3백만 원) △(유)봉황전력(3백만 원) △고흥군친환경석류연합회(2백만 원) △포두면 무술생 감계(1백만 원) △대풍EV전기차(5백만 원) △원불교 고흥교당(1백만 원) △인쇄나라광고나리(1백만 원) △고흥음교회(2백만 원) △과연교회(2백만 원) △(주)도현건축사무소(2백만 원) 등 11개 단체가 기금을 기탁했다.

특히,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3천 2백만 원을, (유)봉황전력은 총 1천 4백만



원을 원불교 고흥교당은 총 1천만 원을 인쇄나라광고나리에서 총 3백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송귀근 이사장은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에 동참해 주신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기탁해주신 기금은 우리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지원 사업에 귀하게 쓰여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대 산학협력단-여수상공회의소 맞춤형 산학협력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병록)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분야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1940년에 설립된 지역의 유일한 종합경제단체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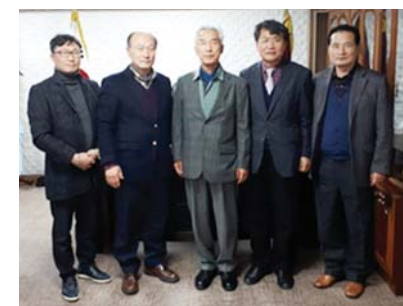
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순천대학교와의 협력이 우리 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대와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병록 순천대 산학협력단장은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 국립대학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특히 기업 경영 개선 지원과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순천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대학 주관 사업은 물론 기업 주관 국책 사업에 기업 맞춤형 사업기획서 작성 등 R&D기회를 지원하고 있는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